

주간단상



이윤규 방송작가

아침에 마당에 나가서 깜짝 놀랐다. 어제만 해도 감감무소식이던 정원에 분홍색 꽃망울이 얼굴을 내밀고 있었던 것이다.

그것제 나라의 대통령이 탄핵돼 집으로 돌아갔다. 탄핵이유는 헌법수호 의지가 없다는 것이었다.

가끔씩 국가란 무엇일까, 국민이란 무엇일까, 또 행복이란 무엇일까를 생각해보곤 한다. 결론은 항상 같다.

행복이란 뭘까

도 국민의 배고픔보다 우선할 수 없다. 호치민 광장에 새겨져 있는 이 유인 하나로 베트남은 사회주의라는 굴레를 벗어던지고 개혁개방의 길로 나갈 수 있었다.

일찍이 일제의 압박에 시달려야 했으며 전쟁을 겪었고 독재와 싸워왔던 우리국민들이야말로 어쩌면 세상 어느 나라 사람들보다 치열한 삶을 살아왔다고 생각한다.

오래전 히말라야에 있는 은둔의 왕국 부탄엔 간 적이 있다. 도대체 이 나라의 국민이 세계 행복지수 1위인 까닭이 궁금해서였다.

비로소 난 그들이 왜 행복한지를 알게 됐다. 이들에겐 내세를 맡길 수 있는 확실한 믿음이 있다.

돌아오면서 생각했다. 이런 기준이라면 우리국민은 확실히 부탄보다 불행하다고. 오늘날 정치를 바라보면 더욱 그렇다.

봄이 온다. 올 봄은 조금 달라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꽃잎의 개수를 헤아린다. 바람이 분다. 살아야겠다.

등촌광장



신영준 일진전기 CTO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여 '아메리칸 퍼스트'라는 기치아래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고 있고, 중국에서는 고고도미사일 배치에 반대하여 한국 기업 및 제품과 관광 등 모든 분야에서 탄압을 가중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이 점차 최종판결을 향해 달려가더니 만장일치로 탄핵인용으로 귀결되었다.

헌재판결이 나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 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딸로부터 연락이 왔다. 잠도 안자고 최종판결을 지켜본 모양이다.

그런데 현재의 재판과 거리의 찬반집회에서 일반 국민이 보기에는 너무나도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다.

기자의 눈



윤대원 기자 ydw@

정부가 수년 전부터 야심차게 추진했던 U-시티, 그러나 언론의 주목을 받으며 금방이라도 새로운 도시모델로 자리 잡을 것 같았던 유비쿼터스라는 단어의 등장 빈도가 줄어드는 것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ICT 기술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환경을 말하는 유비쿼터스 기술을 활용한 U-시티, 사실 최근 말하는 스마트시티와 개념적인 측면에서는 큰 차이를 느끼기 힘들게 사실이다.

때문에 취재 과정에서 U-시티와 스마트

신정부 전력산업정책에 대한 바람

었다. 정치인들도 비슷한 부끄러운 양태를 보였다. 법조인과 정치인들은 모를지기 법리와 입법 및 정책으로 싸워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단순한 생각이 나에게만 들었던 것일까?

이제 2개월 후에 신정부가 들어서면 우리나라 산업정책에도 큰 변화가 오리라 예상된다. 전력 산업은 신뢰성이 극히 중요하여 비교적 변화에 보수적이지만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과감히 수정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런 변화와 개혁을 앞두고는 반드시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의견을 내는 개인 또는 집단이 있게 마련이다. 전력산업분야도 예외일 수 없다.

전력산업정책은 다른 분야보다도 영속성이 중요하다. 지난 정부가 시행했다는 이유만으로 정책중단을 해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더 높다.

전력산업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새로운 정부는 중소중견기업 중심으로 전력산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수립할 필

요가 있다. 공공기관도 정부와 마찬가지로 중소 중견기업 위주로 기술개발 및 사업지원을 전개해야 한다.

IoT, Big Data, AI 등의 응용산업이 앞으로 4차 산업혁명으로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기존 전력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도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물론 전력분야 공공기관 및 전력산업계도 공정성, 투명성을 바탕으로 전력산업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최고한 번쯤은 짚고 가야 하는 것 역시 사실이다. 최근 LH나 SH 등 공공기관에서도 스마트 시티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고민하는 전문가들이 하나 둘 늘고 있다.

스마트시티, U-시티의 발전모델 돼야

최근 정부가 스마트시티 사업모델 개발에 많은 힘을 쓰고 있다.

IoT와 4차 산업혁명이 시장의 화두로 떠오르는 요세, 특히나 정부가 그토록 강조하던 '융합' 측면에서도 ICT와 연계한 건설사업 모델 개발은 분명 매력적이다.

그러나 U-시티가 사실상 한차례 동력을 잃었던 점을 감안할 때, U-시티 사업의 한계와 스마트시티 사업 추진을 통한 발전방향에

다.

정부는 스마트시티라는 구호만 요란하게 외칠 것이 아니라 스마트시티에 적용할 요소기술들, 그리고 시민들이 스마트시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편익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안해야 한다.

그것이 U-시티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는 발전모델이 될 것이다.

Advertisement for HANKOOK INDUSTRIAL CO., LTD. featuring various electrical products like cabinets and switches, with detailed specifications and prices.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and a website link.